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
		배포일자	2023년 4월 11일(화) 총 3매	
담당 부서	시민소통담당관	담 당 자	• 소통민원팀장 강경숙 • 담당자 조영인	☎440-2016 ☎440-2017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16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집단민원과 ‘소통’ 하며 해결방안 모색

- 4월 11일, 민선8기 네 번째 ‘집단민원 소통의 날’ 열어 -
 - 유정복 시장 “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해 신뢰받는 시정 이끌 것”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1일 오후 4시 시장접견실에서 민선8기 들어 네 번째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민선8기 3대 핵심가치 중 하나로 ‘소통’을 내세우며 여러 집단민원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왔다.

이날 유정복 시장이 청취한 집단민원은 ▲영종국제도시 버스요금제도 개선건의 ▲시민안전보험 적용대상 확대 건의 ▲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제도 개선 건의 등이다. <세부내역 붙임파일 참고>

이들 민원은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집단민원과 시정 제도개선 사항으로, 이날 유 시장은 주민대표들과 직접 개별 면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.

이날 현안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자리에는 영종하늘도시주민연합회,

영종국제도시교육비전포럼, 영종초등학교운영위원회, 십정6구역 외 3개 구역 재개발추진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.

지난해의 경우 세 차례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해, △캠프마켓 반환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, GTX-D Y노선 반영, 송도화물주차장 조성 반대 등 총 16개 집단민원에 134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집단민원과 시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.

실제로 ‘집단민원 소통의 날’ 운영 이후 ▲GTX-D Y노선 반영 ▲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 추진 ▲캠프마켓 반환에 대한 시민의견 소통 ▲미래로 교통정온화사업 불편문제 등은 국토부의 GTX확충 통합계획 용역에 반영 건의, 구월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통과, 캠프마켓 시민소통의 날(숙의경청회) 개최, 미래로 개선방안 지속 추진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접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“앞으로도 진정성과 배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다각적 방안 제시, 합의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균형·창조·소통을 시정목표로 정하고 실현 중에 있으며, 그 중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시민과의 다각적인 소통을 위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‘집단민원 소통의 날’, ‘시민참여 토론회’, ‘찾아가는 열린시장실’, ‘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’ 등 다양한 대면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.

<붙임> 제4차 집단민원 소통의 날 안건내용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7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연번	안건	주요내용
1	영종국제도시 버스요금제도 개선 건의	- 영종국제도시 내 학생좌석버스요금체계 신설제안(영종 내 승하차 시 할인적용)
2	인천시민안전보험 적용대상 확대 건의	- 경증사고 보장, 어린이통학보험 신설 등 적용대상 확대 건의
3	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제도 개선 건의	- 「‘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」 선정대상 10개로 한정되어 향후 선정대상 확대 요구 - 재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